



ICANN, 국제다자기구연합으로 인터넷 주소관리 추진 DNS · P주소 · 프로토콜 변경매수 등 레지스트리 관리

인터넷주소관리기구 (회장 파디 쉐하디, 이하 ICANN)는 지난 3월 16일 인터넷주소 관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맡아 왔던 역할을 이양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제공 | 크레인커뮤니케이션스

ICANN의 발표는 미국정부가 인터넷의 주요 기술 기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국제 인터넷 사회에 이양할 준비가 됐다는 역사적인 발표 직후에 이뤄졌다. 미국 정부가 이양하게 될 현재의 권한은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서비스와 루트 존 파일(root zone file ; 최상위 도메인 주소와 이름 목록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관리 권한과 도메인 이름, IP 주소, 그리고 프로토콜 변경매수(parameters)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 레지스트리의 역사적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이로써 미국은 ICANN이 효율적인 다자기구로 성숙하는 것을 인정하고 글로벌 공동체가 모여 미국정부의 관리 권한 체제를 국제 사회의 전원합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해당사자들은 대등한 파트너로서 국제자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견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정부의 이양과 별개로 인터넷의 고유 식별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포함한 인터넷 기술 단체의 역할은 그대로 남는다. 인터넷 고유 식별 기능은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통일된 단일의 인터넷을 유지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ICANN의 이사회 의장인 스테판 크로커(Stephen D. Crocker)박사는 “ICANN이 이러한 중요한 기술 기능들을 계속해서 수행하지만 미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국제 사회로 이양할 것을 오랫동안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달리 말하면 오래 전부터 이러한 목표들을 알고 있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 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쉐하디 회장은 “글로벌 다자기구 프로세스는 참여에 의해 결정되며, 필요한 의견을 모두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끝나는 2015년 9월까지 ICANN의 이러한 기술 기능들의 수평관리를 글로벌 다자기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된 절차를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양 절차 개발에 대한 공동체의 첫 전체 회의는 3월 23일에서 2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CANN의 49회 퍼블릭 미팅 동안 이뤄졌다. ↻

2015년까지 글로벌 다자기구서 관리

ICANN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파디 쉐하디(Fadi Chehade)는 “우리는 세계 각국의 정부, 민간부분, 시민 사회 그리고 인터넷 단체들을 초청해 이양 절차를 개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이

